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8.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 극우단체, 캐나다·유럽까지 세력확장(연합뉴스)
 - 7.24 언론은 백인 우월주의와 신나치주의 성향의 미국 극우단체 「액티브 클럽」이 캐나다·유럽·중남미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, 이들은 전투를 위한 훈련과 체력을 강조하며 신나치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
- 美, '유대혐오 방치 혐의' 컬럼비아대, 벌금 부과(연합뉴스)
 - 7.24 언론은 이스라엘계 재학생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컬럼비아대가 2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나, 행정부와 합의를 통해 대학은 매년 12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보도
 - ※ 美 60개 대학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행정부는 하버드대와의 협상을 진행 중
- 美, 월마트 흥기 난동범 테러 혐의 적용 검토(문화일보)
 - 7.29 언론은 미시간주 검찰이 지난 26일 미시간 월마트에서 11명을 흥기로 찢은 용의자에게 '공포를 주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의도'가 있었다고 판단 後 테러 혐의를 적용하였다고 보도
 - ※ 9·11테러 이후 20여 년간 미시간주 법원에서 테러 혐의를 적용한 적이 없으며, 용의자가 정신질환 병력도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

유 럽

- 英 MI5, 여름방학기간 테러리스트들의 청소년 모집 경고(Mail Online)
 - 7.24 외신은 MI5가 10대 청소년 체포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, 테러리스트들이 여름 방학에 어린이들을 모집하려 한다고 경고했으며, '24년 MI5가 테러 관련 조사를 실시한 사람 중 13%가 18세 미만였다고 보도
 - ※ '23년 테러 관련 범죄로 체포된 219명중 42명이 17세 이하로 역대 최다였다 부언

○ 英, 비행기에서 폭탄 위협 난동부린 승객 체포(연합뉴스)

- 7.28 언론은 런던 루턴 공항에서 스코틀랜드로 향하던 이지젯 항공편에 탑승한 한 승객이 불안간 “비행기에서 폭탄을 찾아라”, “트럼프에게 죽음을”, “알라후 아크바르” 등을 외치며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고 보도
- ※ 언론은 비행기가 글래스고 공항 외곽에 비상 착륙한 뒤 해당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였으며, 기내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언

아 테

○ 관세청, 총기류 등 안전위해 물품 밀반입 집중단속(연합뉴스)

- 7.24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할 것이며, 주요 단속은 여행자 휴대품, 수입화물, 특송화물·우편물, 항만 출입자·선원 등이라 보도
- ※ 화약식 타정총 등은 경찰청,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입 단계부터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부언

○ 韓 BISTEP, “안티 드론 정책 동향 및 개선 방향” 보고서 발간(연합뉴스)

- 7.27 언론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(BISTEP)에서 드론을 막기 위해 안티드론 기술개발, 실증 등 정책 동향 및 법적 장치를 분석·개선방안을 제시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
- ※ 同 보고서는 △안티드론 기술 실증 시설 확충, △체계적인 통제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, △안티드론법 등 특별법 신설을 통한 단일화 된 법령 제정 필요 등 제시

중 동

○ 예멘 후티반군,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모든 선박 공격 선언(연합뉴스)

- 7.28 언론은 후티반군이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으며, 선적과 목적지에 상관없이 미사일 또는 드론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곳이면 공격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이집트 휴양도시 연쇄 차량 폭탄테러

- '05.7.23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휴양도시 '샤름 엘 셰이크(Sharm el Sheikh)'에서 연쇄 차량 폭탄테러 발생하여 8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
 - 전통시장 '올드마켓'에서 최초 폭발 → 나마베이 지역의 4성급 호텔 '가질라 가든스'에서 차량돌진 폭발 → 3차 폭발은 '피네피크 호텔'에서 발생
 - * 해당 테러로 인해 영국·독일·미국 출신 등의 다수 외국인 사상자 발생
- 사건 직후 알 카에다 연계조직 '압둘라 아잠 여단(Abdullah Azzam Brigades)'은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성명을 발표
 - 이후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'무자헤딘 미스르(Mujahidin of Egypt)'도 同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「코피 아난」 UN 사무총장은 '테러와 무차별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'고 지적하며 테러를 규탄
 - * 한편, 경제전문지는 同 테러로 이 지역 예약 항공편의 약 90%가 취소되었고, 경제적 손실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

테러 단체

< 알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해 '88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예멘 알카에다(AQAP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
